금주의 법구–〈법구경〉

욕망의 숲을 자르고
욕망서 벗어난 자가 돼라.
그리고 영원한 자유를 찾아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26 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11월 13일) 2018년 12월 19일 수요일



한국불교 전통등 Beautiful! 한국불교 전통등의 아름다움에 미국인들이 매료됐다. 연등회보존위원회는 11월 29일 미국 뉴저지 스톡톤 대학에서 한국 전통등 강습회를 개최했다. 이종복 스톡톤 대학 교수의 제안으로 열린 이번 강습회에는 미국 학생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복주머니등과 연꽃등을 제작하고 아름다움에 감탄사를 연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완성 후에는 각자의 등을 들고 소원을 비는 시간도 가졌다. 사진은 스톡톤 대학 강습생들의 전체 기념사진. **글=신성민 기자 · 사진제공=연등회보존위원회**

지하철 문화포교 다시 한번 관심을

'풍경소리' 창립 20주년 맞아 게시판 교체 불사 전개

6개 도시 2200개 게시판
20년간 낡고 정비 불가피
소요 예산 약 2억원 예상
지역불교계 관심 필요해

역사 게시판 교체 외에도
포교학술회 · 전시회 예정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1999년부터 지하철 역사 내 부처님 법음을 전하며 문화포교 일익을 담당해온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대표 선묵 혜자, 이하 풍경소리)'가 내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전국 게시판 교체 불사에 나선다. 점차 후원이 줄어드는 추세에서 지역불교계가 이를 함께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풍경소리는 1999년 9월 28일 창립된 비영리 단체로서 지하철 및 철도역사 승강장과 대합실에 게시판을 운영하며, 부처님 가르침이 담긴 문구와 그림을 대중에 전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 대구 · 인천 · 대전 · 광주 등 지하철 역사에 2200여개의 게시판을 설치, 매달 포스터를 바꿔가며 다양한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다. 2001년에는 세계 최초로 지하철에 '봉축열차'를 조성해 80일간 운행하고, 2004년 잠실 롯데월드 민속박물관서 심장병 어린이 후원을 위한 '불교문화체험전' 등을 실시한 바 있다.

풍경소리는 내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행사와 전국 게시판 교체 불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역사 내 환경정비에 따른 게시판 표준화를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됐다.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풍경소리와 사랑의 편지 게시판 규격이 달라 이를 통일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풍경소리는 내년 3월부터 서울 및 수도권을 시작으로 2020년 말까지 전국 철도 및 지하철 게시판을 교체하기로 했다. 소요 예산은 약 1억9000만원이다.

이용성 풍경소리 사무총장은 12월 12일 기자들과 만나 "20년간 한 가지 게시판 디자인을 사용해왔는데, 서울교통공사에서 게시판 규격 일원화를 알려왔다"며 "서울과 수도권에만 현재 1000개가 넘는 게시판이 설치돼 있어 이번 기회에 전국 지하철 게시판을 교체하는 대작불사를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풍경소리 후원이 줄어들고 있어 불교계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풍경소리는 창립 이후 지금까지 거액의 후원금보다는 개인, 불교단체, 사찰 등의 크지 않은 후원금으로 운영해왔다. 몇 년 전까지 약 2억 원의 연간 예산을 집행했지만 최근 들어 1억5000만원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게시판 교체를 위한 별도의 목적사업 예산까지 필요해 지역불교계 도움 없이 사업을 전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풍경소리 측은 내다보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교통공사가 요청한 게시판 규격 일원화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게시판 일괄 철거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단 점에서 대중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용성 사무총장은 "얼마 전 광주에서 게시판을 철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내년 열리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맞춘 지하철 환경정비가 이유였다"면서 "그 즉시 광주에 내려가 게시판 규격 일원화 사업을 설명하며 겨우 설득할 수 있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처럼 지하철 내 풍경소리 게시판은 오래 전부터 곳곳에서 철거 위기를 겪었다. 2014년에는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인천지하철서 시설물 정비를 이유로 철거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조계종 인천사암연합회(회장 성안) 도움을 바탕으로 4년 만에 인천지하철 1 · 2호선 40개 역에 80개의 게시판을 다시 설치하게 됐다. 이에 전국 지하철 게시판 교체를 위해 지역사암연합회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성 사무총장은 "지하철이 대도시에 존재하고, 대도시에는 지역사암연합회가 각 지역에서 높은 공신력을 갖기 때문에 풍경소리 게시판 교체에 힘을 실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하철역에서 대중이 잠시나마 마음을 위로받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불교계가 관심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풍경소리는 게시판 교체와 함께 내년 하반기에 20주년 연수회(7월), 기념식(9월), 도심 대중공간 포교 학술회(10월), 20주년 기념 풍경소리 작품전시회(연중) 등을 계획하고 있다. (02)736-5583

오대산 禪風 분다…오대산문 수행결사

평창 월정사, 12월 18일부터 4일간 진행

오대산문 개산 이래 1400년간 전승돼 온 수행 가풍을 새롭게 다지는 결사가 진행돼 주목을 끈다.

평창 월정사(주지 퇴우 정념)는 12월 18일 '오대산문 수행결사'에 입재한다.

12월 21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오대산문 수행결사'는 한암 스님의 수행가풍을 이어 사부대중의 발심 전법 원력을 새롭게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오대산문에는 신라 신문왕 당시 보천, 효명태자가 수행기도를 통해 불보살을 친견하고 동서남북과 중앙에 오대암자 장엄불사를 한 기록이 있다.

그동안 오대산문에는 상원사와 오대암자에서 수행가풍이 전승돼왔지만, 본사인 월정사의 경우 각종 불사와 행사 등으로 수행 정진에 한계가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오대산문 수행결사는 오롯이 집중 수행하는 기간으로 '오대수행(五大修行)'을 주제로 진행된다. 새벽예불, 염불수행, 참선명상 그리고 저녁예불까지 산사의 모든 대중이 모든 업무를 잠시 멈추고 수행에만 전념한다.

오대산문 수행결사는 여기에 각 경내 도량마다 각자의 특색에 맞는 수행이 차례로 진행된다.

월정사에서는 예참과 독경수행이, 상원사와 중대적멸보궁에서는 염불수행이,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에서는 참선 및 비불자를 위한 명상 수행이 진행된다. 묵언수행을 수행청규로 염불수행의날에는 산내 모든 불자들이 동참한다.

월정사 주지 퇴우 정념 스님은 "원래 결사라 함은 산문을 폐쇄하며 기도 및 염불, 독경 소리가 24시간 경내에 끊이질 않게끔 용맹 정진하는 것을 말한다"며 "이런 결사의 원 취지대로 처음에는 산문 폐쇄까지 생각했지만, 관광객과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의 입장을 고려해 산문을 그대로 열고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념 스님은 "이번 결사의 특징은 예전에 해오던 오대수행 가풍의 역사와 경험을 되살려, 예참, 염불, 독경, 참선, 명상 등을 핵심 수행으로 하고, 수행 청규는 철저한 묵언 수행으로 진행 될 것"이라며 "이번 결사에는 재가자 200여명이 동참할 예정이며, 현재 동안거 결재중인 산내 선원에서도 각자 결사 취지에 맞게 정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정사 '독경' 상원사 '염불'
명상마을선 '참선, 명상' 등
'오대수행' 기치로 집중 수행
매년 연말마다 결사 계획

마지막으로 정념 스님은 "이번 결사를 시작으로 오대산에서는 매년 연말에 수행 결사를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며, 철저한 수행 가풍이 한국 불교에 전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승가학원 이사장 원행 스님 선출

12일 제116차 이사회서 만장일치로
총장 · 이사장 직무 수행 유일 기록
오는 21일 이사회서 차기 총장 선출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장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현재 공석인 중앙승가대 총장 선출은 오는 12월 21일 열리는 이사회서 이뤄진다.

학교법인 승가학원은 12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16차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 호선 · 간서명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정관에 따라 당연직 이사로 선임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승가학원 이사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중앙승가대 6대 총장을 지낸 원행 스님은 이사장에 선출됨에 따라 중앙승가대 역사상 총장과 이사장을 모두 역임하는 첫 사례로 기록됐다.

이와 함께 승가학원 이사회는 오는 12월 21일 오후 3시 제117차 회의를 열고 차기 총장을 선출키로 결의했다. 또한 간서명 이사에는 정안 스님, 진광 스님, 해주 스님이 선임됐다. **신성민 기자**

